

抹額에 관한 연구

강 순 제* · 전 현 실**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The Study on the Marek(抹額)

Soon-Che Kang* · Hyun-Sil Jeon**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 of Korea*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 of Korea**

(2004. 12. 28 투고)

ABSTRACT

Marek(抹額) is the headgear, which is a form of hempen hoods[Geon(巾)] and the origin of it is Pa(帕) of band form. A history book of an old Chinese country Post-Han 《History of HouHan(後漢書)》 had recorded that a soldier wore a red band around his head that was called Pa(帕). In the Han dynasty(漢代), Pa had been transformed into Chaek(幘) or a kind of a hemp cap[巾] while the headgear had still remained as the band form and called Marek from the Tang era(唐).

The literatures of the Tang era had referred the red Marek of soldiers, and other literatures of the later period had recorded that of the previous headgears of the band form were related with Marek. Since the Tang era, white or yellow Marek except red one for soldiers had been worn by soldiers, musicians, dancers and singers in Yuan(元) and Ming(明) of China. The colors was recorded in red on documents mostly, this red implicated soldiers for symbol of terror. This fact was documented in an old history book 《The history of 25 Eras(二十五史)》.

On the other side, a wall painting in Princess Jeonghyo(貞孝公主)'s tomb of the Parhae(渤海) period described the portraits of twelve persons, and among them, two Siwui(侍衛) put on the red Marek. Quoted from the record of a history book of the Tang era system <Tongjun(通典)>, a history book of Three Kingdoms(三國時代) of ancient Korea 《Samguksaki(三國史記)》described that four dancers of Koguryo(高句麗) wore Marek on their heads with the costumes of Koguryo, one of those Kingdoms.

In consideration that the book of 《Tongjun》 was the literature of the Tang era so that Marek mentioned in this book was followed by their name, the Marek of Koguryo dancers shown in the history book 《Samguksaki》 might be a kind of Koguryo style hemp cap[Geon(巾)]. The Marek of Parhae had succeeded to the headgear of Koguryo and the identity was on Koguryo.

Key words: Marek(抹額), Pa(帕), Tang(唐), Parhae(渤海), Koguryo(高句麗)

I. 서론

抹額은 머리에 두르는 두건 형태의 쓰개로 그 용어는 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런데 말액의 전신일 것으로 생각되는 머리를 두르는 띠 형태의 것은 쓰개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으로 이미 戰國時代의 銅人像에 나타나고 있는데, 《後漢書》의 기록에는 秦나라 武將이 머리에 붉은 색의 머리 띠 즉 絳帕를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唐代의 문헌을 보면 이러한 띠 형태의 것을 말액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武士들이 붉은색의 말액을 착용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후대의 문헌에는 종종 이전의 띠 형태의 쓰개가 말액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말액은 元이나 明에서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백색 혹은 황색 등의 말액도 함께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말액의 유래는 당 이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더불어 용도 및 색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발해인의 복식이 그려져 있는 발해 3대 文王 大欽武(737~793)의 四女로 밝혀진 貞孝公主墓¹⁾ 벽화가 1981년 和龍縣 龍頭山 西古城子 부근에서 발굴되었는데, 여기에 묘사된 12人²⁾의 인물 중에서 2인의 侍衛가 머리에 紅色의 抹額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고, 《三國史記》는 唐代〈通典〉의 기록을 인용하여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식 복장에 말액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발해가 고구려에 정체성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발해인의 말액 착용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연계하여 보면 말액에 유사한 쓰개는 일찍부터 고구려에서도 착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구려인의 말액 착용에 대한 것은 언급된 바 없고, 발해 정효공주묘에 나타난 말액도 당연히 당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고구려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에서 사용되었던 말액의 유래와 색상 및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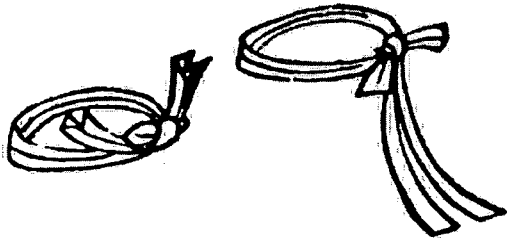
《삼국사기》에 언급된 고구려식 복장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말액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말액과의 관계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말액에 대해 체계적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말액의 시초가 된 쓰개와 형태가 유사한 高句麗 巾과의 관계도 고찰해봄으로써, 말액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말액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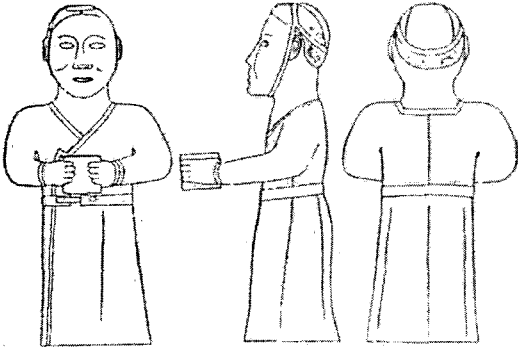
말액의 전신으로 생각되는 帕는 긴 띠의 형태로 頭上을 두르는 것인데(그림 1), 燕下都 遺址에서出土된 戰國銅人像의 모습(그림 2)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戰國策》에 張儀가 韓章을 설득하는 말에서 보면, “진나라의 용맹한 무사는 달릴 때 맨머리를 하는데 이는 비록 그 무사의 용맹함을 말한 것이기는 하나 진나라 용사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밖에 武將같은 사람들은 ‘絳帕’를 首飾으로 사용한다…진나라 孝公이 武幘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絳帕’도 후에 무사들이 사용하였다…이들 모두는 진나라가 가지고 있던 제도였다”³⁾라고 하여, 帕가 秦代의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後漢書》에도 “秦나라가 제후들을 제압하고 나서 그 무장들에게 首飾으로서 絳帕를 만들어 귀권을 표현했다. 그 후 앞면에 顏題을 만들었는데, 題은 이마로, 즉 이마 위 앞쪽에 山 모양을 만든 것이다. 이 시대의 책의 방식은 높지 않았으며 다만 귀밑머리를 감싸는 정도였고, 초기에는 단지 두발을 넣는 자루였다. 이는 帕首[頭首]의 모양과 비슷했다.”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帕가 일정한 모양을 갖추면서 점차 幘으로 발전하였으며, 帕는 또한 帕首라고도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資治通鑑》에는 “옷으로 缺勝 綠衫을 입고, 머리에는 紅帕首를 쓰는데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抹額이라 말한다.”⁵⁾고 하여, 帕 즉 帕首와 抹額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漢代의 產物인 幘의 前身은 秦代의 絳帕로(주4 참조), 책은 ‘강파’에서 생겨났음을 알 수 있고⁶⁾, 이외에 頭巾 형태인 額子는 착용 시 鬢쪽의 布帛으로 頭髮을 감싸 동여매는 것으로서, 착용 시 머리의 上

部를 덮지 않아 상투가 頂 위에 드러나므로 말액과 유사한 점이 있다.⁷⁾

이를 통해 帕 즉 帕首라고도 불리웠던 秦代의 쓰개는 여기에 顏題와 前面에 山 모양이 가해져 漢代의 幘이 되기도 하였고, 여전히 頭巾의 형태로 남은 것은 唐代에 이르러 抹額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즉 긴 띠의 형태인 파는 두 가지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모로서의 幘이고, 다른 하나는 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抹額이다. 한편으로 당시의 幘은 抹額과 같이 頂이 없는 쓰개로서 형태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림 1〉 帕(倭漢三才圖會 卷28, p. 540)



〈그림 2〉 戰國銅人像(漢代之文物 插圖, p. 8)

Ⅲ. 말액의 용도

말액이라는 명칭의 쓰개에 대한 문헌 기록은 唐부터 明代까지 등장하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용도와 그에 따른 소재는 착용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붉은색 계통으로, 착용자는 武人, 舞人, 唱人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武人用的 말액은 다음과 같다.

唐代의 婁師德이 紅抹額을 쓰고 왕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나서 吐蕃을 토벌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을 통해, 주석보는 홍말액을 쓰는 이러한 복장이 일반 용사의 복장임을 알 수 있다⁸⁾고 하였다.⁹⁾ 또 宋代의 儀衛 중 教官들은 幘頭와 紅繡抹額을, 招箭班은 모두 長脚幘頭와 紫繡抹額을 썼다¹⁰⁾고 했으므로 幘頭와 함께 기록된 말액의 착용모습을 생각해 보면 복두의 하단부를 홍색이나 자색의 抹額으로 감싸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元에서도 “儀衛服은 寶花가 수놓아진 緋色羅의 抹額을 쓰고”¹¹⁾, “外仗 金鼓隊 중 都尉 두 명은 交角幘頭와 緋羅繡抹額을 쓰고, 紫羅繡辟邪補襠, 紅錦襪袍를 입고 金帶를 차고…清遊隊 중 金吾折冲 두 명은 交角幘頭와 緋羅繡抹額을 쓰고, 紫羅繡辟邪補襠, 紅錦襪袍를 입고 金帶를 허리에 차고…金吾果毅 두 명은 交角幘頭, 緋繡抹額을 쓰고, 紫羅繡辟邪補襠, 紅錦襪袍를 입고 金帶를 허리에 차며…이외에 仗前隊 중 領軍將軍, 諸衛馬前隊 중 左右衛郎將, 左右衛儀刀班劍隊 중 左右衛中郎將, 供奉宿衛步兵隊 중 供奉中郎將도 이와 유사한 구성의 품목과 말액을 사용했다.¹²⁾ 또한 《新元史》에 의하면 蘇稍隊 중 金吾將軍 두 명은 交角幘頭, 緋羅繡抹額을 착용하였으며 朱雀隊 중 金吾折冲, 十二旗隊 중 金吾果毅, 門旗隊 중 監門將軍, 武衛鉞戟隊 중 武衛將軍, 御馬隊 중 引左右衛將軍, 金吾授寶隊 중 引金吾將軍, 羽林宿衛 중 羽林將軍, 朱雀隊 중 金吾中郎將 등도 말액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둘째, 樂工用的 말액 관련 기록은 《元史》에, “舞師 두 명이 舒脚幘頭와 黃羅繡抹額을 쓰고 紫服을 입고 허리에 金銅荔枝帶를 띠고 阜靴를 신는다…執器 20명은 복장은 樂工과 동일한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綠油母追冠을 쓰는데, 일명 武弁이라 하고, 여기에 紅抹額을 더한다…至元 2년에, 引舞色長 네 명은 紫羅公服에 阜紗展脚幘頭와 黃羅繡南花抹額을 쓰고 金銅帶를 차고 阜靴를 신는다.”¹⁴⁾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明史》에는 “舞樂生冠服 중 「撫安四夷之舞」에 이르기를 춤을 추는 사람은 東夷 네

명으로 머리 뒤에 椎髻를 하고 系紅鎖金額繩, 紅羅鎖金抹額, 中綴塗金博山, 兩傍綴塗金巾環, 明金耳環, 青羅生色畫花大袖衫, 紅生色領袖, 紅羅鎖金裙, 青鎖金裙緣, 紅生絹襯衫, 鎖領, 塗金束帶, 烏皮靴를 갖추고, 南蠻 네 명은 朝天髻의 머리모양에…紅鎖金抹額을 쓰고…北翟 네 명은 單于冠을 쓰고, 貂鼠皮簪, 雙垂髻를 하며…紅羅鎖金抹額을 쓴다. 宮中女樂冠服 중 洪武 3년에 정해진 제도에서 歌章女樂은 黑漆한 唐巾에…大紅羅抹額을 쓰고, 王府樂工冠服 중 洪武 15년에 정해진 제도에서 花鼓吹冠에 彩畫된 紅羅抹額을 쓰고, 그 나머지 樂工은 彩畫된 紅絹抹額을 사용한다.”¹⁵⁾라 하였다.

셋째, 唱人의 抹額에 대한 기록을 보면, 《舊唐書》와 《新唐書》에 “崔成甫가 노래 10수를 지었는데, 白衣, 缺膀 綠衫, 錦半臂를 입는데, 한쪽 소매는 건어 올리고, 머리에는 紅羅抹額을 쓰고, 제1선에서 노래를 부른다.”¹⁶⁾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唐代부터 언급되고 있는 말액은 당대에는 주로 武人用으로 쓰이고 있으나, 宋과 元代에는 武인들이 복두와 함께 말액을 사용한 예가 많고 元代부터는 비단에 수를 놓아 화려하게 꾸며진 말액이 주로 舞人用으로 쓰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IV. 말액 색상의 의미와 착장법

문헌에 기록된 말액의 색상은 대부분 紅이나 緋와 같은 붉은색 계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붉은색 계통의 색상은 예부터 두려움의 상징이었다.¹⁷⁾ 또한 《後漢書》에도 “무관은 항상 赤幘을 쓴다.”¹⁸⁾는 기록이 있어 武人 말액의 색상도 이와 같이 붉은색의 상징적 특징 때문에 정해졌을 것이다. 말액의 형태는 당시의 벽화에서 비교적 상세히 볼 수 있는데, 발해 貞孝公主墓 壁畫 중 侍衛의 모습 <그림 3~4>이나 李賢墓 벽화의 武士<그림 5>의 모습에서 武人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홍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首服의 색상에 차이를 두어 일반인과 구별하는 것은 春秋·戰國時代부터 시작되었다. 漢代의 幘은 제례 시에 紺幘, 농경 시에는 靑幘, 수렵



<그림 3> 侍衛
(발해를 찾아서, p. 51)



<그림 4> 侍衛(그림3)의
抹額 착용모습(부분)



<그림 5> 唐 李賢墓의 武士
(동서미술의 흐름 II : 벽화, p. 504)

시에는 紺幘, 비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綠幘 등으로 구분을 두었는데, 특히 軍吏는 赤幘을 사용하였다¹⁹⁾는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말액의 색상은 붉은색 계통 이외에도 白色, 黃色도 있었다. 白色의 抹額은 唐 章懷太子 李賢墓의 狩獵出行圖<그림6>에서 볼 수 있는데, 白色의 團領이나 白色과 紅色의 盤領을 입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白色의 말액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黃色의 抹額은 《元史》의 舞人服에 관한 기록에 있는데, 舞師 두 명이 舒腳 幘頭와 黃羅繡抹

額을 쓰고 紫服을 입고 허리에 金銅荔枝帶를 띠고 阜靴를 신고 있는 것과 引舞色長 네 명이 紫羅公服에 阜紗展脚 幘頭와 黃羅繡南花抹額을 쓰고 金銅帶를 차고 阜靴를 신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주14 참조)에서 확인된다.

抹額의 착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幘頭 위에 사각형의 천으로 복두의 하단부를 감싸 뒤통수에서 천을 한번 꼬고, 뒤에서 앞으로 끌어올려 복두의 頭頂 부분으로 말아 올린 후 고정시킨 것으로, 이는 장회태자 벽화의 인물<그림 7>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그리고, 전술한 문헌의 기록(주12~14 참조)을 보아도 말액은 항상 복두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 복두를 착용한 후 그 위에 말액을 착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말액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舞人 중에는 椎髻나 朝天髻 형태로 머리를 묶고, 그 위에 직접 말액을 쓰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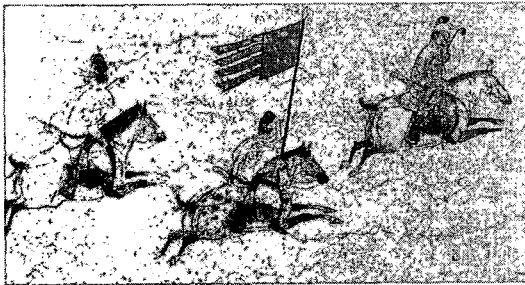
<그림 8> 白抹額 착용모습
(西安, p. 45)

V. 발해의 말액과 고구려 복식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抹額에 관련한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渤海의 정효공주묘 벽화 중 시위의 모습과 《三國史記》고구려조에 실린 내용뿐이다.

발해의 정효공주묘 벽화에서 흥말액을 쓰고 있는 시위 2인은 역할이 다른 시종, 내시, 악기 등의 인물들과 달리 활동이 편리하도록 좁은 소매통에 팔에는 腕甲을 두르고 어깨에 鐵槌를 매고 있는 모습(그림 3 참조)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복장과 역할을 고려해 본다면 시위가 착용한 두건류의 쓰개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무인용의 붉은색 말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도 말액에 상당하는 쓰개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문헌의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즉 《三國史記》고구려조에는 “고구려 음악에 대해 「通典」²⁰⁾에 이르기를, ...춤추는 자가 4명인데 이들은 붉은색 말액을 하고, 머리 뒤로 쇠뿔이 모양의 상투를 틀고(椎髻), 금귀고리를 장식한다. 이들 중 2명은 황색 유와 군을 입고 적황색 고를 입는다. 2명은 적황색 유, 군, 고를 입는데 아주 긴 소매이다. 신발은 烏皮로 된 목화를 신고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춘다 ...당나라 무태후[측천무후]때 까지도 25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한 곡만을 익힐 수 있을 뿐이고, 의복제도마저 점차 쇠미해지고 없어져서 그 본래의 풍모를 잃고 말았다.”²¹⁾라고 하



<그림 6> 李賢 墓 狩獵出行圖(中國美術史, 插圖23)



<그림 7> 抹額 착용모습
(中國古代服飾史, p. 324)

였다.

위의 내용에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 고구려식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면, 고구려에서도 말액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쓰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에 기록된 말액은 眞孝公主墓의 侍衛가 착용한 말액과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착용 방법에서 차이는 보이나, 서로의 연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는 고구려의 풍습이 발해로 계승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김민지는 이에 대해 《三國史記》의 기록이 唐의 《通典》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舞者는 당나라에서 고구려 음악의 연주와 함께 그에 맞춰 춤을 출 당나라 사람이 붉은 말액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록만으로는 고구려에 말액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효공주묘 벽화의 말액도 고구려의 것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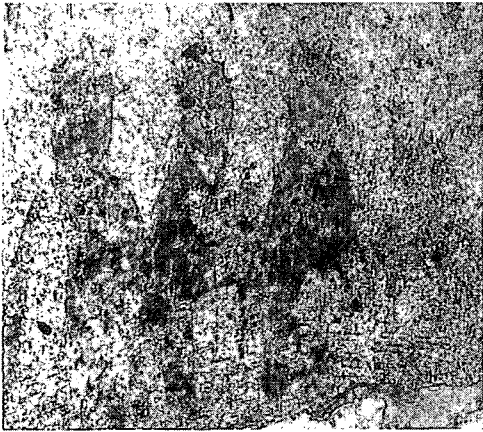
그러나 《三國史記》에서 《通典》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측천무후의 시기(684~705년)에는 고구려 음악과 춤을 출 때의 복장 제도가 많이 쇠미해졌다고는 하였으나, 고구려 음악과 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므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사람으로 묘사된 舞人의 쓰개는 말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의 帕 계통의 頭巾類로서, 이것이 《通典》에 쓰여 졌을 당시에는 唐에서 널리 쓰였던 말액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말액이라는 것은 당대에서부터 등장한 용어인 바, 《通典》에서는 이와 유사한 쓰개를 말액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전》이 쓰여진 시기를 고려했을 때,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舞人은 唐人일 것이나, 이들의 머리쓰개로 묘사된 帕 계통의 頭巾類는 고구려에 정체성을 둔 것으로서 발해 문화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감안하면 발해 말액의 근원은 고구려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띠 형태의

巾을 두르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9>는 약수리 벽화 앞칸 동벽 그림으로, 말을 타고 가는 貴人의 행차와 그것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차 앞에서 북을 어깨에 매고 있는 사람은 붉은색의 띠를 머리에 두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10>은 약수리 벽화 서벽의 신하들의 모습으로 이마에 띠 형태의 건을 들렀다. 또한 백색 띠 형태의巾을 이마에 두르고 있는 여성의 모습<그림 11>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간단한 띠 형태의 건은 머리가 흘러 내려 오지 않게 하여 활동에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벽화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건은 중국 고대의 帕와 같은 유형의 것으로 발해에 영향을 주었고, 훗날 이는 발해에서 계승되어 말액으로 지칭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通典》에서 고구려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고구려의 것을 계승한 것인 만큼, 춤추는 자의 服裝에서 묘사된 말액을 당나라의 것이라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 약수리벽화 앞칸 동쪽 벽화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262)



〈그림 11〉 약수리벽화 서벽의 신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p. 255)



〈그림 12〉 쌍영총 벽화 인물상
(한국미술전집1:벽화, p. 57)

VI. 결론

抹額은 머리에 두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쓰개로 그 용어는 唐代의 기록에서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그 유래는 秦代의 帕 혹은 帕首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머리에 두르는 띠 형식의 것으로, 후에 두 가지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모로서의 幘이고, 다른 하나는 巾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抹額이다. 漢代에 이르러 이마 위쪽에 山 모양이 가해지면서 책으로 발전하였으며 당시의 책은 그다지 높지 않아 귀밑머리를 감싸는 정도로 帕首와 유사한 형태였고, 唐代에는 頭巾의 형태로 남아 抹額이라고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편으로 幘과 抹額은 頂이 없는 쓰개로서 형태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唐 이후 말액은 元이나 明에서도 儀衛나 樂工, 舞人이나 唱人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백색 혹은 황색 등의 말액도 붉은색의 말액과 함께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문헌에 기록된 武人用 말액의 색상은 대부분 紅이나 緋와 같은 붉은색 계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붉은색 계통의 색상은 예부터 두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武人의 말액도 홍색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착장법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사용한 예보다는 幘頭의 前面 下段部에 사각형의 천으로 머리에 두건을 두르듯이 감싼 형태로, 뒤통수에서 천을 한번 꼬고 뒤에서 다시 복두의 前面 頭頂 부분으로 말아 올린 후 고정시켜 착용한 예가 많다. 이를 입증하듯 《二十五史》의 여러 문헌에는 말액을 항상 복두 다음에 기록하여, 복두를 착용한 후 그 위에 말액이 착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문헌에 의하면 당대에서 명대까지 말액은 다양한 색상과 비단에 수를 놓은 화려한 것들도 있어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착용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계급의 武人이나 儀衛 혹은 舞人이나 唱人까지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쓰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渤海 貞孝公主墓 벽화에는 12인이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인의 侍衛가 머리에 紅色의 抹額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발해에서도 말액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高句麗條에는 唐代의 〈通典〉 기록을 인용하여,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고구려식 복장에 말액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通典》은 盛唐 때의 문헌으로, 여기에 언급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착용했다는 말액은 唐人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의 기록일 뿐이므로, 이와 유사한 쓰개는 이미 고구려 舞人들이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진나라의 쓰개인 파는 띠 형태의 것으로 말액의 시원 형태이고, 이는 한대에 이르러 파의 앞면에 안제를 더하고 일정한 모양을 갖추면서 점차 책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파가 頭巾의 형태로 남은 것은 唐代에 이르러 抹額이라고도 불려 긴 띠의 형태인 파는 두 가지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반면 당에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사람들이 착용했다고 하는 말액은 唐代의 말액과 유사한 고구려의 것으로서, 발해가 고구려에 정체성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발해인의 말액도 고구려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약수리 벽화인 물에서 말액의 전신인 띠 형태의 쓰개가 확인됨으로써, 이를 발해의 말액과 연관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巾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貞孝公主는 기록을 통해 渤海 756년(大興 20)에 출생하여 渤海 792년(大興 56)에 36세로 쯤하였다. '大興寶曆'은 文王이 재위기간에 사용한 2개의 年號로 그는 737년(仁安 18)에 재위하여 '대흥'으로 정하였다가 774년(大興 38)에 '보력'으로 고쳤다.
- 2) 묘사된 인물은 武士, 侍衛, 樂伎, 內侍, 侍從의 직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하였으며 풍만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男裝女人으로 보고 있다. 이는 唐代의 窟에서 시작되어 민간에도 퍼져서 보통 여자들의 일상 裝束이 되었다. 이미 北齊에서 남장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初唐에서 盛唐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했다. 《新唐書》에 "고종이 잔치를 벌였는데 태평공주는 자삼옥대, 검은 비단 의 절상건을 쓰고 분려칠사를 갖추어 입금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 황제와 황후는 웃으며 '여자는 무관이 될 수 없다. 어찌 그와 같은 복식을 하였는가?'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開元·天寶代에 성행하였다. 《新唐書》輿服志에는 여자의 男裝이 契丹의 풍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거란뿐만 아니라 서역의 각 종족의 생활 풍속이 당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이다. 中·晚唐期(756~907)에 이르러서는 安祿山의 亂 이후, 胡에 대한 호기심이 경각심으로 변하면서 여자의 남장 유행은 급속히 감소되어 侍女들에게만 계속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문헌에서는 남장이 여러 계층에서 유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유물자료에는 주로 시녀, 그 중에서도 젊은 여자에서 나타난다. 이런 유행 현상이 同時代의 渤海에서도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12사 중 武士 2인은 약 98cm의 키로 通道 後部(무덤간 안길 뒤쪽)

동·서벽에 각각 하나씩 그려져 경계를 서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侍衛 2인은 약 113cm의 키로 墓室 동·서벽에 서 있다. 樂伎 3인은 약 113~117cm 키로 묘실 서벽에 서 있고, 內侍 3인은 약 113~117cm 키로 묘실 동벽에 서 있으며, 侍從 2인은 약 117cm 키로 묘실 북벽에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정효공주묘 벽화는 묘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792년 前後에 그려졌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묘사된 인물을 통해 8세기 말경의 渤海 服飾을 살필 수 있다.

- 최무장 편역 (1988). 발해의 기원과 문화. 藝文出版社, p. 287; 김용문 (1999). 唐代의 服飾研究-唐三彩人物俑을 중심으로-. 韓服文化, 2(1), pp. 64-65; 金素賢 (1994).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5 참조.
- 3) 如 《國策》張儀說韓章中所云, "秦虎擊之士, 蹠跑(一作徒跣)科頭", 此雖言其勇鬪, 但也示秦勇士의 特點. 其他如武將用絳帕作爲首飾...秦孝公作武幘. 這種絳帕...這都是秦所具有的制度.
 - 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p. 69.
- 4) 《後漢書》志第30 輿服下 : 古者有冠無幘, 其載也, 加首有類, 所以安物. 故詩曰 '有頰者弁', 此之謂也. 三代之世, 法制? 茲 影, 下至戰國, 文武並用. 秦雄諸侯, 乃加其武將首飾爲絳帕, 以表貴賤. 其後稍稍作顏題, 題卽是額. 卽在額上前面作山. 這時的幘式大抵還是不高的, 初時只韜裹髮, 使之不下垂而已, 類乎帕首樣.
- 5) 《資治通鑒》記有陝尉崔成甫著錦豐臂 缺膀綠衫以褱. 紅帕首, 注: 今人謂之抹額.
- 6) 王宇清 (1967).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p. 71.
- 7) 額子同抹額有點相似, 是用橫幅帛來約束頭髮. 是一種沒有頂的頭巾, 也就是髮髻顯露在頂上的一種 頭巾.
 - 周錫保 (1986). 위의 책, p. 280.
- 8) 周錫保 (1986). 앞의 책, p. 206.
- 9) (주8)에 따르면, 周錫保는 어느 벽화에 나타난 홍말액을 쓴 무사의 모습을 보고, 그를 무사덕이라 지칭했으나, 그 벽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무사덕의 존재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말액을 쓴 무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장희태자 이현묘' 벽화 자료뿐만 아니라, 장희태자의 활동 시기가 축천무후의 재위기간과 일치하고, 축천무후 재위 당시 재상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무사덕의 입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주석보가 제시한 벽화는 이현묘 벽화의 인물이라 사료된다. (<그림 5> 제시) 婁師德은 서족 출신으로 20세에 진사로 발탁되어, 급제하였으며 상원초(674년)에 감찰어사에 임명되었고 후에 중군하여 토번을 정벌한 공으로 중대어사로 승진하였으며 하원군(지금의 청해성 서저지)사마를 겸하였고 지영전사를 아울렀다. 천수초(690년)에 연이어 좌군 오장군에 수여되었으며 교풍주(소재지는 지금의 내몽고 오원)도독을 겸하였고 여전히 지영전사를 맡았다. 무사덕은 북쪽 변경을 맡은 이래로 군인무를 총괄하여 영(영주, 소재지는 지금의 저하영부)과 하(하주, 소재지는 지금의 섬서 정변 북쪽)를 왕래하면서, 둔전을 점검하고 수확률을 높여 경저에 급히 비축하였으며, 화적의 비용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운반의 어려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여 둔전에 의한 곡식을 비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량을 수년동안 지탱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무축전은 심히 기뻐하였으며 곧 루사덕을 제상으로 임명하였고, 또 하원·적석·회원 등의 군(軍) 및 하·란·선·랍 등의 검교영전대사를 겸하게 하였다. 또한 무축전은 매년 무과를 통해 많은 군사 인재들이 양성되었는데, 그 중에 변방을 지키는데 가장 유명했던 대장으로는 루사덕, 당휴경, 장인원, 박원진 등이 있었다. 특히 통천원년(696년) 1월11일에는 축천 무후가 루사덕을 숙변도행군부총관으로 하여 토번을 치게 하였다. 이후 신공원년(697년) 다시 루사덕에게 농우제군대사를 담당케하고 검교하서영전사를 계속 맡도록 하는 등 무축전의 신임과 지지하에 루사덕은 하원군 등지의 농목업의 발전에 대해서 커다란 공을 세우기도 했다.

- 루사덕에 관한 내용은 《舊唐書》本紀第6 則天皇後條, 列傳第37 李昭德條, 列傳第43 婁師德條, 列傳第146 土蕃上條 ; 《新唐書》卷제4 本紀第4 則天皇後中宗條, 卷第99 列傳第33 劉蕤婁條, 卷第182 列傳第116 忠義上條, 卷第195 列傳第129 方技條, 卷第197 列傳第131 外戚條, 卷第206 列傳第140上 突厥上條, 卷第213 列傳第144 北狄條에 기록되어 있다.

- 10) 周錫保 (1986). 앞의 책, p. 280.
- 11) 《元史》志第28 輿服1 : 儀衛服色…抹額, 制以緋羅, 繡寶花.
- 12) 《元史》志第29 輿服2 : 儀仗…外仗 金鼓隊 金鼓旗二, 執者二人, 引護者八人, 皆五色絕巾, 生色寶相花五色袍, 五色勒帛, 靴, 佩劍, 引護者加弓矢, 分左右, 次折沖都尉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清遊隊…金吾折沖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仗飛隊…次金吾果毅二人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仗前隊 領軍將軍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白澤褱 紅錦襪袍, 金帶…諸衛馬前隊…左右衛郎將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瑞馬褱, 紅錦襪袍, 金帶…分左右帥騎士百五十有六人…左右衛中郎將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瑞馬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分左右供奉宿衛步兵隊…供奉中郎將二,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瑞馬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分左右帥步兵凡五十有二人, 執短戟十有二人, 次執列絲十有二人, 次叉戟十有二人, 次斧十有六人, 分左右…夾玉輅行.
- 13) 《新元史》卷90 志第64 輿服3 崇天鹵簿外仗 儀衛 : 覆翔隊 金吾將軍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朱雀隊…次金吾折沖一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十二旗隊…金吾果毅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門旗隊…監門將軍二人, 皆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獅子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武衛鉞戟隊 武衛將軍一人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瑞鷹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御馬隊…引左右衛將軍二人, 緋羅繡抹額, 紫羅繡瑞馬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金吾授寶隊…引金吾將軍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羽林宿衛…次羽林將軍二人, 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瑞鷹褱, 紅錦襪袍, 錦蹕蛇,

金帶, 烏靴…次朱雀隊, 金吾中郎將二人, 皆交角幘頭, 緋羅繡抹額, 紫羅繡辟邪褱, 紅錦襪袍, 金帶, 烏靴…陪駱隊…金鼓隊…清遊隊…仗飛隊…仗仗隊…諸衛馬前隊…左右衛儀刀班劍隊…供奉宿衛步兵隊…

- 14) 《元史》志第22 禮樂5 樂服 : 舞師二人, 舒脚幘頭, 黃羅繡抹額, 紫服, 金銅荔枝帶, 皂靴…執器二十人, 服同樂工, 綠油母追冠, 革爲之一名武弁, 加紅抹額…至元二年閏五月…引舞色長四人, 紫羅公服, 皂紗幘頭展脚, 黃羅繡南花抹額, 金銅帶, 皂靴.
- 15) 《新元史》卷88 志第62 輿服1 樂服 : 抹額, 制以緋羅, 繡寶花…舞師, 舒脚幘頭, 黃羅繡抹額, 紫服, 金銅荔枝帶, 皂靴…至元二年閏五月, 大樂署言…引舞色長四人, 紫羅公服, 皂紗幘頭展角, 黃羅繡南花抹額.
- 16) 《明史》志第43 : 樂舞生冠服…文舞, 曰 《撫安四夷之舞》, 舞士, 東夷四人, 椎髻於後, 系紅鎖金額繩, 紅羅鎖金抹額, 中綴塗金博山, 兩傍綴塗金巾環, 明金耳環, 青羅生色畫花大袖衫, 紅生色領袖, 紅羅鎖金裙, 青鎖金裙緣, 紅生緋襪衫, 鎖領, 金束帶, 烏皮靴, 南蠻四人, 緋朝天髻…紅鎖金抹額…北翟四人, 戴單于冠, 貂鼠皮簪, 雙垂髻…紅羅鎖金抹額…宮中女樂冠服 洪武三年定制…本色髻髻…歌章女樂, 黑漆唐巾…大紅羅抹額…王府樂工冠服 洪武十五年定…有花鼓吹冠, 抹額以紅羅彩畫…其餘樂工用…抹額以紅羅彩畫…
- 17) 《舊唐書》列傳 第55 : 看唱 《得寶歌》成甫又作歌詞十首, 白衣缺胯綠衫, 錦半臂, 偏袒膊, 紅羅抹額, 於第一船作號頭唱之.
- 18) 《新唐書》食貨3 卷第59 志第43 : 玄宗 29年…先時民間唱俚歌曰 《得體乾那邪》, 其後得寶符于桃林, 於是歙縣尉崔成甫更 《得體歌》爲 《得寶弘農野》, 堅命舟人爲吳楚服, 大笠, 廣袖, 芒屨以歌之. 成甫又廣之爲歌辭十闕, 白衣缺後綠衣, 錦半臂, 紅抹額, 立第一船爲號頭以唱.
- 19) 周錫保 (1986). 위의 책, p. 69, p. 87.
- 20) 《後漢書》卷40 志第30 輿服下 : 武吏常赤幘 成其威也
- 21) 周錫保 (1986). 위의 책, p. 87.
- 22) 唐 大曆 元年(766)에 편찬을 개시하여 貞元 17년 (801)에 완성되었다.
- 23) 《三國史記》卷33 雜志1 音樂 : 高句麗樂通典云…舞者四人 椎髻於後 以絳抹額 飾以金瑱 二人黃裙襦 赤黃袴 二人赤黃裙襦袴 極長其袖 烏皮鞋 雙雙併立而舞…大唐武太后時 尚二十五曲 今唯能習一曲 衣服亦衰敗.
- 24) 이재호 역 (1997). 삼국사기(3). 서울출판사, p. 35; 이강래 역 (1998). 삼국사기(II). 한길사, pp. 636-637 참조.
- 25) 김민지 (2000).渤海服飾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7-68.